

어렵고 부족할 때 만족하고 채우는 행복감이 있다.



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2019년 11월 24 일(주일) 본당 주보 성인 그리스도 왕 대축 일에 견진성사자 68명과 교우 377명이 참석 한 가운데 시흥 4동 성당 교우와 가정, 견진 성사를 위한 정순택 베드로(서서울 지역 교 구장 대리 주교)님의 미사 봉헌 중 견진성사 축복식을 집전하신 다음 본당 주보 축일 행 사인 교우들 간 함께하는 중식 나눔을 가졌 다.



이날 주교님께서 말씀의 전례 복음 강론을 통하여 '시흥4동 성당에 세 번이나 왔으나 을 때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왜냐하면 저가 40년 전에 시흥동 있는 한 중학 교에 다녔습니다.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면이 있기 때문입니다. 교육관과 성전 리모델링 착공식 그리고 오늘 본당 주보 축일인 그리스 도 왕 대축일 견진성사 축복식에도 정다운 얼굴로 반겨 주시니 더욱 감격하고 행복합니 다. 독서와 복음에 왕 중에 임금이신 그리스 도는 세속 권력의 왕이 아닌 자신을 낮추고 비소와 조롱 속에 믿었던 제자들마저 뿔뿔이

흩어져 배신과 죽음까지 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.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 다. 하느님께 많은 권한 을 부여받았지만 지배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음의 훈장은 유대인의 왕과 기쁨의 희망인 메시아입니 다. 시흥 4동 성당 형제자매님들은 그리스도 왕 처럼 빈약한 주위 환경을 하느님께 내려주신 은 사에 접근하여 그리스도 왕의 신앙을 하고 있습 니다. 주위 환경이 부유할 때보다 빈약하여 근검 절약으로 차곡차곡 저축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 입니 다. 시흥4동 성당 교육관과 성전 리모델링 공사 부채로 인하여 빈약한 재정에도 오늘같이 견진성사 축복받은 이가 많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 다. 견진성사로 유아적 영세 세례를 받 은 다음 굳건하고 완벽한 어른 신앙인의 증표로 성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' 란 말씀에 이어 견진 성사자 이마에 향유를 바르고 축복하신 다음 견 진성사자 68명 외 대부 대모자 같이 장시간의 기 념 촬영에 피로한 기색도 없이 응 해주면서 미소 까지 잃지 않았다. 본당 주보 축일 행사로 마련



한 소고기 육개장과 조출한 반찬의 중식 나 눔 마당에서 교우들 간 함께하신 주교님께서 는 중식 시간을 넘긴 시간에 시장하셨는지 모르나 육개장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다 드시고 조금 더 잡수신 것을 보았다. 주교님 께서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하시어 종신서원 과 사제 수품 성사를 받으시고 서민과 빈곤 층을 항상 가깝게 하시는 주교님으로 교구에 서 평가가 나 있다.

